

청년정책 정보 ‘한눈에’…광주청년통합플랫폼 개통

일자리·주거·교육·문화 등 총망라
취창업·이러닝·금융 등 종합상담
18일까지 SNS홍보 이벤트 진행
“청년 통합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광주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정책 정보를 알차게 제공하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이 정식 개통했다.

광주시는 광주시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청년정책플랫폼을 지난해 독립 시스템인 ‘광주청년통합플랫폼’으로 새롭게 구축, 3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1일 개통했다.

새로 선보인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은

청년들이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 원스톱으로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분야 등 다양한 정책을 인공지능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각종 사업 신청, 상담·공간 예약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는 △광주시·자치구 및 전국 청년정책 정보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맞춤형 서비스 △우수기업 및 일자리 정보 △청년 종합상담 △청년 자율공간 △역량 강화 학습지원 등을 안내한다.

특히 AI 맞춤형 서비스는 사용자 정보, 플랫폼 내 활동, 관심분야 등을 기준으로 특징을 분석해 추천 사업, 연관 콘텐츠,

주변 청년 공간의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 종합상담 공간은 취·창업, 교육, 금융 지원 등에 대한 종합상담 및 청년정책 관련된 간편 문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화·방문·게시판 상담을 운영한다.

여기에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서 제공하는 공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일자리 찾기, 강소기업 및 일자리 우수기업 등 정보, 역량강화 학습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일학습 병행과정, 이러닝학습 등이 가능하다.

청년 자율공간은 청년들이 취미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공간으로, 현재 공공에서 운영하는 100여 곳의 정보를 제공 중이다. 앞으로 민간부문 50여 곳을 추

가 지정해 청년들에게 공간정보와 예약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의 이용자 확대와 인지도 향상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300명(3만원권 30명, 1만원권 270명)에게 공공배달앱 ‘땡겨요’ 상품권을 지급하며, 28일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주청년통합플랫폼메인·정책 정보 관련 홍보게시물을 이미지, 해시태그(#광주청년통합플랫폼)와 함께 작성, 플랫폼 이벤트 페이지에서 게시물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

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과 광주시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청년통합플랫폼 운영으로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듣고 플랫폼을 개선해 나가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청년통합플랫폼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함께 청년들을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해 청년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청년을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전남도 ‘2025년 청렴실천 결의대회’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각 실·국장 직원들이 1일 도청 왕인실에서 ‘2025년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도민이 행복한 청렴 전남을 실천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무안국제공항 조기 재개항 ‘급물살’

정부, 시설개선후 운영재개 추진
서삼석 “공항 활성화 적극 지원”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을 포함한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기로 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항 운영 재개 추진 계획 수립 및 정기노선 운항 확대와 피해 지역 지원 등 무안공항 조기 재개항과 공항 이용 활성화 대책을 담은 회신문을 전달받았다.

국토부는 회신문에서 무안국제공항 조기 재개항을 위해 공항 안전시설을 조속히 보수하고, 안전성 검토 후 재개항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재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를 위해선 운항 장려금 지급과 시설사용료 감면을 통

해 정기노선 취항 및 신규 운항사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기존 운항사에는 운수권 및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우대를 통해 재개항 이후 빠르게 여객기 정상 운항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회와 협의해 피해지역 인근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무안국제공항 운항사와 이용객, 인근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달 14일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 및 운영재개 일정 제시 △정기노선 유치를 위한 대책 △기존 공항 운항사에 대한 운수권 및 슬롯 우대 △참사 피해지역 인근 사업자 피해 지원 촉구 등의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이용객 90만명 돌파 후 100만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주춤했다.

지난해부터는 개항 후 첫 정기노선 취항과 함께 운항 편수도 전년 대비 82% 확대되는 등 활기를 되찾았고, 공항 이용객도 2022년 3만7000명에서 2024년 23만4000명으로 약 7배 급증하는 등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공항 운영이 중단되면서 광주·전남 지역민의 이용 불편은 물론 관광객 유입 중단으로 지역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달 초 방위각시설 개선 설계가 시작되고 성능 검증과 안전성 검토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공항 재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안국제공항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 최고로 안전한 공항, 여객과 물류 교류의 허브 공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산 소비재, 일본 시장 진출 ‘청신호’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 참가
20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 등 성과

전남도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25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참가해 총 2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과 67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을 진행하며 일본 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밝혔다.

전남도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 본부와 함께 지역 10개 유망 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했다. 이번 박람회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과 ‘2025 오사카·간사이 국제엑스포’ 개최를 기념해 기존 도쿄에서 열리던 소비재전을 오사카에서 특별 개최했다. 전남도는 이 기회를 활용해 일본 시장 진출 기반을 다졌다.

지역 기업은 화장품, 식품, 유기질비료, 수산물 등 일본 소비자 취향에 맞는 제

품을 집중 전시하며 현지 바이어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신안 도초도의 천일염에 다양한 맛을 더한 프리미엄 소금을 출품한 ㈜해여름은 현장에서 일본 바이어와 2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 ㈜에스에이치랩(유기농화장품) △ ㈜미실란(미숫가루·오곡) △ ㈜아라움(크리스피 오징어 스낵) △ ㈜쿠키아(두부과자) △ 맑고맑고따뜻한협동조합(유자차) △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전복) △ 티존(호박차·와인티) △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유기질 비료) △ ㈜둥서산업(컬러 목재 칩) 등 참가기업 10개 사는 일본 94개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며 총 67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공무원, ‘지역상권 활성화 착한 소비’ 동참

시청 구내식당 중식 휴무 확대
2·4째주 금요일 인근식당 이용

광주시 공직자들이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착한 소비’에 동참한다.

광주시는 4월부터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구내식당 중식을 휴무한다고 1일 밝혔다. 구내식당 휴무는 매주 2회 수요일(가족사랑의날)과 금요일(지역경제 활성화) 석식에 적용하던 것을 이번엔 월 2회 중식 휴무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고물가·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시청 전 직원이 솔선수범해 소비 촉진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광주시는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해 12월 24일과 27일 두 차례 구내식당의 문을 닫고 ‘인근 식당 이용하는 날’을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힘을 보탰다.

광주시는 또 지난 1월23일 경제단체, 산업계 등 76개 기관·단체와 함께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 광주’를 열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날도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구내식당 휴무를 실시했다.

광주시는 이밖에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의 민생경제 정책 실천방안으로, 올해 1분기 △전통시장·동네상점 이용하기 △광주공공배달앱 이용하기 등 지속적인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권범 기자

전남도, ‘가고 싶은 섬’ 기차여행 상품 출시

코레일과 협력 12개 상품 구성
여수·남도·강진·가우도 등 중심

전남도는 코레일과 협력해 봄맞이 ‘가고 싶은 섬’ 기차여행 상품 12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행 상품은 여수·남도, 진도·관매도 등 5개 섬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봄을

맞아 섬 여행을 즐기려는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섬 여행객들에게 1인당 4만~6만원의 인센티브와 KTX 왕복 열차비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섬 기차여행’은 서울·경기·충북 등 내륙지역 여행객이 KTX를 이용해 전남을 방문하고, 섬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도록 기획된 상품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 경남권 여행객을 위한 경전선 연계 상품도 새롭게 출시 됐다. 부산에서 출발해 순천과 보성을 거쳐 전남 섬으로 이동하는 일정으로, 더욱 편리한 여행이 가능해졌다.

이번 상품을 통해 방문할 수 있는 섬은 여수·남도, 강진·가우도, 진도·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 기점·소악도 등이다. 여

행 기간은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각 섬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섬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한 만큼 ‘가고 싶은 섬’ 기차여행 상품을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전남의 정경·자연과 생태 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섬 여행상품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가고 싶은 섬’ 기차여행 상품의 상세

일정 및 예약은 코레일 누리집(http://www.letskorail.com)에서 ‘가고 싶은 섬’ 이름을 검색해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광주여행센터(062-942-3376)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에는 섬 기차여행 상품을 통해 총 927명의 여행객이 전남 섬을 방문했으며, 교통·숙박·식사·기타 비용 등을 소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오지현 기자